

최근 독일 음악과 교육과정의 구조적 특징*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Recent German Curricula for Music Class

주 대 창**

Dae Chang Ju

초록 본 연구는 독일의 최근 음악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구조적 다양성을 들춰내고 그 함의를 밝혀내고자 한다. 독일 각 주에서 사용하는 모든 음악과 교육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그 체제는 교사에게 학습 내용을 실제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육과정의 명칭과 내용 구조 및 역량 안내가 주에 따라 다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 중심으로 음악과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기본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에 따라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정 시기가 다름에도 전반적으로 역량 중심의 체제를 사용하면서 학습 영역을 구체화하는 것은 오늘날 음악 교과에게 요구하는 학습 내용이 그러한 방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주제어: 음악과 교육과정, 독일 음악교육, 음악교육 내용, 음악교과역량, 학교음악교육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reveal the structural diversity of the recent German music curriculum and to identify its implications. As a result of analyzing all the music curriculum used in each state, the system took the form of practically guiding learning contents to the teacher. But, curriculum names, content structures, competence guidance, and revision time varied from state to state, although designing music curriculum around competences is a fundamental trend, implying the use of competence-oriented frameworks to refine the learning area efficiently.

Key words: music curriculum, German music education, school music contents, competences for music class, school music education

* This study is supported by a research fund 2018 for research professors at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E-mail: dcju@gnue.ac.kr

© 2019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All rights reserved.

<http://dx.doi.org/10.30775/KMES.48.4.223>

I. 서론

공교육의 차원에서 공통교과의 형태로 운영되는 학교 음악교육은 그 대상이 일반 학생이라는 점, 그리고 그 내용이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제한된 테두리 안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를 규정하는 공식 문서로서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교육의 방향과 내용 및 그 실행을 안내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음악과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살펴보면 곧 해당 음악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음악과 교육과정의 사례를 모으고 분석하는 일은 학교 음악교육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Kim et al., 2002, pp. 317-353; Lee, 2019, pp. 61-84).

음악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음악과의 목표,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그 열개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음악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시하여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게 한다. 나아가 음악과 교육과정의 형식과 내용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음악과 교육과정의 틀을 점검하면 그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학교 음악 교과의 방향을 더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음악교육의 틀이 한국과 비교적 유사하고, 역량 중심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운영해온 대표적 나라인 독일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독일 음악과 교육과정이 취하고 있는 구조적 특징이 본 연구의 관심사이다.

독일은 음악 교과를 기본 공통 교육과정의 필수교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 급을 초등, 중등 I, 중등 II로 나누고 있어서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구분과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반면,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16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주는 자체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 주의 다양한 음악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최근의 독일 학교 음악교육의 흐름을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 산업사회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의 열개 구성에 대한 고민을 들춰내고, 향후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정보를 축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먼저 독일의 15개 교육과정(베를린 주와 브란덴부르크 주는 공동 운영)에 나타난 음악과 교육과정의 명칭과 학년 구분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음악과 교육과정의 문서 구조를 분석해보려고 한다. 그 가운데 음악과 교육과정의 장 배열에 나타난 특이점을 점검하고, 현대 학교 음악교과의 추세에 따라 역량 중심의 구성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이어서 실제 수업 주제 분야를 거느리고 있는 학습 영역의 현황과 특징을 논의해보려고 한다.

독일의 기본 공통(의무)교육의 학년은 큰 틀에서 볼 때 1학년에서 9/10학년까지로 볼 수 있다. 이 단계가 중등 I 과정이다. 독일의 중등 I 과정은 주에 따라 종합학교

등 다른 형태를 취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레알슐레(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으로 나눌 수 있다. 하우프트슐레의 경우 대개 9학년으로 마감한다. 주별 교육정책에 따라 그 이후 10학년을 추가로 수학할 수도 있다. 레알슐레는 대개 10학년 또는 11학년까지 운영된다. 중등 I 과정에서 중급 졸업 증명(der Mittlere Schulabschluss)을 획득한 학생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김나지움 상급반(중등 II 과정)에서 수학할 수 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Abitur)을 치름으로써 그 과정이 끝난다(KMK, www.kmk.org/de). 본 연구의 고찰 대상은 1-10학년의 음악과 교육과정이다. 중등 II 과정의 김나지움 11, 12/13학년에도 음악 교과가 운영되나,¹⁾ 그것은 한국 고등학교의 음악 선택 교과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본 고찰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특수학교의 음악과 교육과정도 연구의 집중화를 위하여 열외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과’와 ‘음악 교과’라는 표현을 혼용한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음악과 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을 쓰므로, 교육과정과 관련된 서술에서는 그것에 따랐다. 하지만 음악이라는 교과를 지칭할 때(예: das Fach Musik)는 교과라는 말을 노출하는 것이 명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지칭 용어나 교과 내용을 열거할 때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독일어의 사고를 그대로 드러내도록 번역하였다. 이를테면 ‘기대 역량’과 ‘역량 기대’(Kompetenzerwartung)가 주는 뉘앙스의 차이 때문에 원문에 충실하여 후자를 택하였다.

II. 외형 제시의 틀

전체 독일의 주별 음악과 교육과정을 조망해 보면, 우선 그 체제에서 각자 고유성을 추구한다. 국가 수준에서 학교 교육과 관련된 큰 틀의 안내가 연방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및 문화장관협의체(Kultusminister Konferenz²⁾)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대개 법령에 준하는 원론적 수준의 내용이다. 교과에 관여할 때에도 독일어, 수학, 물리, 화학 등 특정 교과에 한정하고, 그 관여 범위도 기본적 사항의 정리에 머문다. 음악 교과와 관련해서는 1996년 발표한 “동시대 음악 및 생존 작곡가 음악 촉진 권고” 정도가 눈에 띈다.³⁾ 음악과 교육과정

1) 전통적으로 9학년제(13학년까지) 김나지움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 8학년제(12학년제)로 압축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8학년제에서도 그 수학 내용(단위 시수)은 변함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Deutscher Bildungsserver, <https://www.bildungsserver.de> 참조.

2) 독일의 주 정부에서는 대부분 문화부가 교육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므로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Beschluß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13. 09. 1996. 예: “동시대 음악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접근할

의 실제적 내용은 주 정부에서 정하고 공포한다. 따라서 전체 15개의 독일 음악과 교육과정은 하나의 공동체적 산업사회가 학교 음악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취해볼 수 있는 다양한 문서 형태를 보여준다.

다음에서 문서 체제의 다양성에 접근하는 방법의 하나로 모든 주에 나타난 교육과정의 명칭과 적용 시기 및 학년 구분을 조망해 보았다. 명칭에 병기한 연도는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어 있거나(예: 바덴-뷔르템베르크, 함부르크, 자르란트 등), 별도로 제시된 안내(예: 바이에른, 베를린 & 브란덴부르크, 헤센 등)에 따랐다. 적용 시점이 학년별로 다른 경우는 해당 학교 급의 최초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표시하였다.

<Table 1> Title and grade division of music curriculum

State	Title	Grade division	Note
Baden-Württemberg	Education plan 2016	1~2, 3~4, 5~6, 7~9, 10	In the case of Gymnasium, grades are separated by 9-10.
Bayern	Class teaching plan 2014[Elementary], 2004[Mittelschule], 2001[Realschule], 2009[Gymnasium]	1~2, 3~4, 5, 6, 7, 8, 9, 10	For secondary school, achievement level is proposed by grade.
Berlin & Brandenburg	Teaching plan frame 2017/2018	1~4, 5~6, 7~10	In the common curriculum documents, the achievement level is proposed based on school type or level.
Bremen	Plan frame 2001 [Elementary]/2012 [Secondary (general ⁴)]/ 2007[Gymnasium]	1~4, 5~6, 7~8, 9~10	Presentation of competence for art (Ästhetik) as an integrated form of physical education, music, and art (Elementary school)
Hamburg	Education plan 2011	1~2, 3~4, 5~6, 7~8, 9~10	In 2018, the general part was revised by school level(type).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야 함.”

4)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김나지움을 제외한 중등학교를 통칭한다.

5) 자를란트 중등 일반: 총론 제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각론의 내용은 그 전에 개발되었으며, 현재 시범적용단계(Erprobungsphase)로 공개되어 있다.

State	Title	Grade division	Note
Hessen	Education standards & content fields/New core curriculum 2011/2012	1~4, (5~6), 5~9/10	Provide guidance (Leitfaden)
Mecklenburg-Vorpommern	Normative plan [Elementary: No year], 2002[Secondary, 5th and 6th grade are not specified.]	1~2, 3~4, 5~6, 7~8, 9, 10	Application of curriculum developed collaboratively by Berlin & Brandenburg (Elementary school)
Niedersachsen	Core curriculum 2006[Elementary], 2012[Secondary (general)], 2017[Gymnasium]	1~2, 3~4, 5~6, 7~8, 9~10/5~10	In the case of comprehensive school and Gymnasium, grades consist of 5th to 10th grades, and achievement level is presented in three stages.
Nordrhein-Westfalen	Teaching plan 2008 [Elementary], Core teaching plan 2013 [Secondary(general)]/2019[Gymnasium]	1~2, 3~4, 5~6, 7~8, 9~10/7~10	In the case of Realschule and Gymnasium, grades consist of 7th to 10th grades
Rheinland-Pfalz	Normative plan 2010[Elementary], Teaching plan 2018/2019 [Secondary]	1~4, 5~6, 7~9, 10	1st to 4th grade are presented in one unit, elementary level.
Saarland	Core teaching plan 2011[Elementary], Teaching plan 2017 ⁵⁾ [Secondary(general)], Teaching plan 2006[Gymnasium]	1~2, 3~4, 5~6, 7~8, 9, 10/7, 9	In the case of Gymnasium, after music was assigned to grades 7th and 9th, it was moved to secondary school level II (grades 11th-12th).
Sachsen	Teaching plan 2019	1~2, 3, 4, 5, 6, 7, 8, 9, 10	Except for a low-grade, students are divided into individual grade units.
Sachsen-Anhalt	Class teaching plan 2007[Elementary], Secondary(general) [2012], Gymnasium[2016]	1~2, 3~4, 5~6, 7~8, 9~10/9, 10	Competency focus varies by school level(type).

State	Title	Grade division	Note
Schleswig-Holstein	Class requirements 2018/2019 [Elementary], 2015/2016 [Secondary]	1~2, 3~4, 5~6, 7~8, 9~10	Provide guidance (Leitfaden) under class requirements
Thüringen	Teaching plan 2010[Elementary], 2012[Secondary]	1~4, 5~6, 7~8, 9/9~10	Provision of achievement goals based on the last year of each grade unit (In the case of Hauptschule, 9th grade only).

1. 명칭

독일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그 명칭을 통일하지 않고 각 주별로 적절한 방식을 찾아 사용한다. 앞의 〈Table 1〉에서 보듯이, 대부분 독일어의 교육(Bildung) 또는 교수(Lehr)와 계획(Plan)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형태를 띤다. 거기에 규범(Rahmen)이나 교과(Fach)를 덧붙이는 경우도 관찰된다. 헤센 주와 니더작센 주는 커리큘럼(Curriculum)이라는 라틴어 기원의 명칭을 쓰고 있다(헤센: Das neue Kerncurriculum, 니더작센: Kerncurriculum). 헤센 주는 커리큘럼이라는 용어와 함께 ‘교육표준 및 내용분야’라는 독일어 현장 용어를 병기하고 있다([Figure 1] 참조).



[Figure 1] Cover of Hessen state music curriculum

커리큘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거기에 핵심(Kern)이라는 단어를 부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사실, 길어야 수십 쪽에 불과한 문서로서 음악과 교육과정이 학생의 음악적 경험 진행을 모두 포괄해내기에는 불가능하다. 핵심이라고 전제한 것은 중요한 것을 제시한다는 의미 외에, 기본적인 사항만을 안내하고 세부적인 것은 단위 학교나 그곳의 교사 또는 교과서 저자에게 일임한다는 뉘앙스를 준다.

교육과정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체제의 교육과정을 구분하여 명명하는 효과를 준다. 위에 언급한 주에서 보듯이 전통적 ‘교수계획’이라는 명칭 대신 쓰인 ‘커리큘럼’이나, 쉐레스비히-홀스타인 주가 최근 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요구사항’(Fachanforderungen)도 그 예에 속한다. 한국의 대학입시에서 연도와 아울러 ‘학력고사’ 세대, ‘수능’ 세대라고 일컫는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새 교수계획’이라는 말보다 ‘핵심교육과정’ 또는 ‘교과요구사항’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더 편리한 면이 있다. 한국에서도 교육과정 발달에서 ‘교수요목’ 시대와 ‘교육과정’ 시대가 구분된다.

2. 적용 시기

명칭과 더불어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정 시기, 즉 적용 시점이다. 위의 <Table 1>에서 보듯이 주별 음악과 교육과정의 적용 시점은 그 명칭 못지않게 다양하다. 2001년부터 사용한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2019년부터 새 음악과 교육과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곳도 있어서 그 차이가 무려 거의 20년에 달한다. 산업사회 체제를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하나의 국가에서 각 주의 교육과정 개정 시기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 것에 대한 궁금함이 발생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고려될 수 있다. 각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총론을 보면 음악 교과가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와 그것이 전체 학교 음악교육에 기여하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 원칙에 입각하여 하위의 교과 내용이 제시된다. 따라서 시대가 바뀌어도 그 논리적 열개에 큰 하자가 없으면 굳이 획일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지 않는다. 물론, 자를란트, 니더작센, 라인란트-팔츠 등에서 보듯이 한 주 안에서도 시기를 통일하지 않고 각 급 학교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오고 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지니고 있는 음악 교과의 위상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연방 차원에서 관리하는 언어, 수학, 자연과학 관련 과목은 그 교육 방향과 내용이 바로 업데이트되어야 하지만, 문화 관련 과목인 음악 교과는 그 방향과 내용이 현 시대에 개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미 포괄적으로 진술되고 있다. 2001년 개정된 브레멘의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을 제외하면, 독일의 모든 현행

음악과 교육과정에는 역량 중심의 교과운영이 이미 안내되고 있다. 브레멘 주의 경우에도 중등 음악과 교육과정(2007, 2012)에는 역량 중심의 열개가 잘 나타난다. 또한 2002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메클렌부르크-포퐁머른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에도 역량 체제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 말하자면,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정은 각 주의 교육제도 운영 상황에 따른 측면이 없지 않지만, 현 시대의 음악교육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반영하는 데는 나름의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다.

3. 학년 구분

학년 구분의 방식은 일차적으로 학교 급 및 종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와 맞물려 있다. 하지만 학교 급 내의, 그리고 학교 급 및 종류 간의 연계성 및 위계를 고려하면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일단 전체를 아우르는 학년 표시 방식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독일의 음악과 교육에서는 학교 급 및 종류보다 숫자에 의한 학년 표시를 우선한다. 그러므로 중학교 1학년, 김나지움 3학년 등의 용어 사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대신 1학년에서부터 12 또는 13학년까지가 숫자로 열거된다.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제시하는 학년 묶음, 즉 학년 군을 보면, 전반적으로 복수의 학년을 엮는 방식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학교 급을 내세우거나 단일 학년 단위로 교과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학년 군의 경우 2개 학년을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흔하다. 그런데 튜링겐의 경우 2개 학년 단위의 학년 군에서 뒤쪽 학년을 기준으로 성취수준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를테면 3~4학년을 구분하여 내용을 제시할 때, '3/4학년'이라는 제목을 두는 경우와, '4학년 말까지'라는 제목을 두는 경우의 어감이 다르다. 전자는 두 개의 학년 동안 내용을 분산하여 다루면 될 것 같은 인상을 주며, 후자는 성취 기대사항을 학년 군의 말까지 완결시켜야 할 것으로 여겨지게 하는 면이 있다.

눈에 띄는 변형 방식은 자를란트 주의 김나지움에서도 발견된다. 학년 군의 뒤쪽이 아닌 아래쪽, 즉 7~8학년의 7학년에 음악과를 이수하도록 안내한다. 그것은 일종의 음악교과 집중이수제의 형태로 이해된다. 이후 9학년에 다시 음악 교과를 이수하고, 10학년의 과도기(예술 선택)를 거쳐 김나지움 상급과정(성취증명 단계)의 음악 교과로 넘어간다. 즉, 9학년제 김나지움을 8학년제로 압축하면서 김나지움의 상급반 진입을 위한 마감 단계를 9/10학년에 추가로 설정하였다(SRL, 2006, p. II).

학교 급 단위로 성취수준을 제시하는 경우는 초등학교를 크게 하나의 단계로 묶은 것이 대표적이다. 전체 15개 주에서 5개의 주(베를린 &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헤센, 라인란트-팔츠, 튜링겐)가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4개 학년⁶⁾을 위한 내용

을 마지막 학년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고 있는 셈이다. 헤센 주의 것은 초등학교 최종 학년 단계의 성취수준을 제시하면서도, 특이하게 김나지움의 경우 5~6학년을 위해서만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다. 이 단계가 초등학교 4개 학년을 이수한 후 중등교육 차원의 본격적 김나지움 교육을 받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사한 경우가 메클렌부르크-포포머른 주에서 발견되는데, 5~6학년용을 위해 별도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학교 급 단위의 내용 제시방식을 준용하는 것으로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베를린 주 및 브란덴부르크 주도 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중등 I 단계에서 5~6학년을 과도기로 보고 별도로 운영하면서, 그 나머지 학년을 7~10학년으로 구분하여 하나의 연속적 과정으로 운영하게 한다.

니더작센은 최근 개정된 김나지움용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만 학교 급을 포괄하는 성취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교과 역량을 그대로 학습 영역으로 쓰면서, 각 영역별 성취 단계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음악 형성하기(노래하기, 악기 연주하기, 움직이기)에서 노래하기와 악기 연주하기는 기초와 심화의 두 단계로, 움직이기는 기초만으로 성취수준을 제시한다. 이에 비하여 듣기·서술하기·연구하기·의미부여하기의 음악 수용 영역에서는 3단계로 나뉘어 성취수준을 제시한다(〈Table 2〉 참조). 이것은 학교 급에 하나의 통일된 학습활동을 안내하면서도, 학년 대신 성취수준을 내세워 그 단계를 관리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말하자면 학습 시간의 진행이 아니라 학습 수준의 도달을 우선하는 구조이다.

<Table 2> Classification of achievement level(Gymnasium of Niedersachsen)

Domain	Activity		Stage
Music organizing	Singing		Basic
	Playing instruments		-Advanced
	Moving		Basic
Music listening and describing, Music studying, Giving meaning in music	Music organizing tool	Rhythm, Melody, Harmony, Dynamic, Articulation	Basic
		Form and structure	-Advanced I
		Language, Scene, Picture, Film, Program music	-Advanced II
	Music in historical and social relationships		

6) 독일에서는 초등학교가 전통적으로 4학년제이며, 대부분의 주가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7) 독일어 ‘gestalten’은 일반적으로 ‘형성하다’, ‘형태를 부여하다’, ‘구체화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음악 교육 분야에서 활동으로 지칭할 때는 학생들이 음악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수행해내는 일을 뜻한다.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쓰이는 ‘표현하기’에 가깝다. 다만, 표현하기는 음악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으나, 형성하기는 음악을 목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활동 자체’를 가리키는 뉘앙스가 강하다.

개별 학년 단위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작센 주, 바이에른 주처럼 초등학교 1~2학년(작센) 또는 초등학교 1~2, 3~4학년(바이에른)을 제외하고 모두 개별 학년으로 나눠 내용을 배정하는 고정적 형태가 있다. 그 외 대부분의 주에서는 학년 군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학년을 떼어내어 제시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것은 중등 I 단계의 학교 종류에 따라 이수 학년이 달라지는 데 기인한다. 말하자면 김나지움을 제외한 중등 일반의 경우 하우푸트슐레는 자주 9학년까지만 운영된다. 이에 비하여 레알슐레 등은 10학년 또는 11학년의 경우도 있으므로 당연히 학교 종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과도기적 학년 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중등 일반의 9학년과 10학년이 떨어져 제시된 경우가 발생한다. 5~6학년과 더불어, 9학년 및 10학년은 절반이 넘는 주에서 학교 종류에 따라 부분적으로라도 단일 학년 체제를 취하고 있다.

III. 내용 제시의 틀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 음악과 교육과정의 문서에 대한 접근은 독일의 통합적 교육서버(Bildungsserver)를 통하여 매우 쉬워졌다. 아울러 공교육의 교육과정은 당연히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각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내용 제시의 틀은 서로 매우 다르다. 그것이 해당 교육과정의 이해에 합목적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때, 각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이 지닌 체계의 함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학교 음악교육의 전체 틀을 어떤 체계에 의해 안내하느냐는 그것의 공유를 넘어서 그것의 적용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1. 장 배열에서의 특이점

음악과 교육과정의 구조는 일차적으로 교과 위상을 명확히 하는 데서 출발한다. 모든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에는 음악 교과의 바탕이 되는 사고를 먼저 명시하고 있다. 물론 같은 맥락에서, 함부르크 주나 메클렌부르크-포포머른 주처럼, 학교 급이나 종류에 따른 포괄적 교육 목표를 앞서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머지 주에서처럼 그러한 사항을 음악과 교육과정과 분리하여 그 전에 별도로 밝힐 수도 있다. 개정 연도가 오래된 브레멘(2001) 주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만 예술 교과 통합적 안내를 선행시킨다. 니더작센의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의 성격을 안내하기 전에 “뮤즈

적-포괄적-미적 교육”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범교과적 교육철학을 개별 교과 교육과정 안에 위치시킬 것인지, 아니면 전체 총론으로 따로 밝힐 것인지는 기술적 측면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음악 교과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서술을 그 첫째 장에 배치한다. 음악 교과를 넘어서는 원론적 사항이 자칫 교과 내용과 겹칠 수 있고, 무엇보다 음악 교과의 정체성을 논하면서 자연스럽게 범교과적 교육목적을 소화하는 것이 더 현실감을 높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음악 교과를 넘어서는 안내를 제외하고, 교과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부분의 순서를 보면, 거기에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네 가지의 접근 범주가 관찰된다.

<Table 3> Type of approach in the introduction chapter

Type	Emphasis of perspective	Emphasis of competency	Music class contribution	Presenting a goal
State	Rheinland-Pfalz, Schleswig-Holstein	Hessen, Baden-Württemberg, Berlin & Brandenburg, Hamburg, Thüringen	Bayern, Mecklenburg-Vorpommern ⁸⁾ , Niedersachsen, Saarland, Sachsen-Anhalt[Secondary]	Bremen, Nordrhein-Westfalen, Sachsen, Sachsen-Anhalt [Elementary]
Key-words	Outcome, Profile, Music class	Competence, Development, Achievement.	Justification, Contribution, Education, Nurture	Task, Goal

이 네 가지는 그 내용에서 당연히 서로 겹치는 면이 있다. 하위 장에서 주요 단어들을 대부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입 장의 제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학교에서의 음악 교과를 바라보는 지점을 알아보게 한다. ‘관점 부각형’은 기본 원칙과 새로운 교육 경향을 소개하는 해설자의 입장을 취한다. ‘역량 강조형’은 학생의 포괄적 역량 성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음악 교과의 고유성을 더불어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교과 기여형’은 음악 교과의 위상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음악교육의 전통적 가치를 내세우는 입장에 가깝다. ‘목표 제시형’은 있는 그대로의 분업적 사고를 엿보게 한다.

독일 음악과 교육과정은 어느 유형을 취하든 결과적으로 음악 교과의 정체성을 회

8) 중등 7~10학년에서 특이하게 “교과교수법적 원칙”이라는 제목을 쓰고 있으며 그 하위 장에서 ‘교과 기여형’으로 서술한다. <Table 4>의 해당 부분 참조.

피하지 않는다. 명분 없이 음악 교과와 내용 부분을 내세우면서 교과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법체계처럼, 상위의 단계에 기반을 두고 하위의 단계를 풀어가는 방식이 눈에 띈다. 이 부분은 다음 장들에서 다시 논의 될 것이다.

서술 순서에서 초등과 중등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작센-안할트 주이다.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 음악 교과교육의 관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비하여 중등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 교과가 전체 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기여 방식을 소개한다. 다음은 해당 장의 맨 앞에 나오는 두 개의 시작 문장을 비교한 것이다. 중등의 경우, 특히 사회에서의 문화적 삶의 영위에 방점이 찍히는 것으로 읽힌다.

〈초등〉

“초등학교에서의 음악수업은 어린이들의 노래하기, 악기 연주하기, 춤과 움직임, 음악 청취하기에 대한 욕구를 유지시켜야 하며, 계속하여 발달시키고 숙련시켜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기본적인 능동적인 음악적 문해력을 경험하고 음악에 대한 그들의 즐거움을 지속시킬 수 있다.” (SAA, 2007, p. 5)

〈중등(일반)〉

“음악은 전체 삶에 걸쳐 사람을 동행한다. 음악은 그 다양한 형태로 모든 민중의 문화적 삶에, 그리고 인간의 기초적인 욕구와 활동에 포함된다.” (SAA, 2012, 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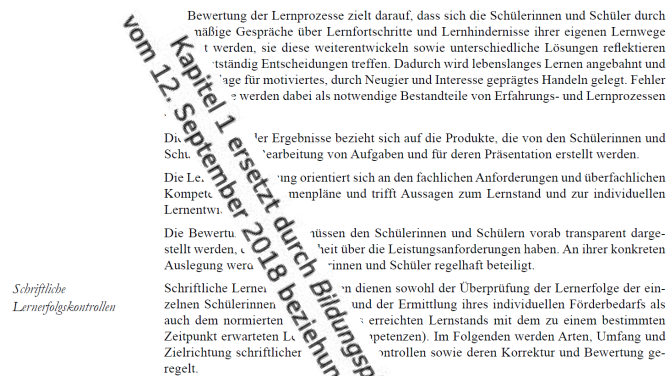
〈중등(김나지움)〉

“음악은 모든 영역에서 삶에 관여하고 우리의 문화적 고유성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적 공급물에서 음악을 만난다.” (SAA, 2016, p. 2)

이것은 각 학교 급의 교육과정이 따로 만들어졌음을 시사한다. 개정 시기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데 최근에 개정을 완료한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이를테면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 주, 헤센 주, 작센 주, 쉬레스비히-홀스타인 주의 경우는 전체 음악과 교육과정의 틀을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공유한다. 그리고 학교 급 또는 학년 군에 따른 내용만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각 주의 고유성을 강조하더라도 효율적 구성방식에 대한 노하우는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다양한 학교 급 및 종류가 있더라도 전체 교육의 시스템을 쉽게 파악하게 해야 하는 일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의 구성 순서는 총론적 사항에 따라 각론적 사항이 결정되므로 작성 순서도 그것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학교 음악교육의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때로 그 순서가 뒤바뀌기도 한다. 말하자면 총론이 뒤에 추가되거나 교체되는 경우가 있다. 상시 개정의 체제에서 시대성을 즉각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 그만큼 세부적 사항의 변화보다 그것의 교육적 처방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주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함부르크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이 눈에 띈다. 함부르크 주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첫째 장을 최근에 개정하여 이전 것을 대체하였다. 그런데 그 장을 이전 교육과정에 끼워 넣어 새로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별도의 문서로 공유한다. 그래서 기존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맨 앞에 있던 공통적 안내의 장에는 유효기간 만료를 알리는 띠가 덧씌워져 있다(Figure 2] 참조). 이를 통해 학교교육의 지향점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새로운 버전의 교육 경향을 숙독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보인다.



[Figure 2] Information of general issues

학습 시기, 즉 학년이나 학년 군에 따른 내용 배열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헤센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보면 전체 틀을 공유하여 모든 종류의 중등학교 음악과 교육 과정에 “학습 시기와 관련한 역량 기대 및 내용 분야”라는 장이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김나지움의 5~6학년에서만 그것을 밝히고, 하우프트슐레나 레알슐레에서는 그것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생략한다.”라고 적혀 있다(HES, 2012, p. 19). 말하자면, 최종 도달 수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학습시기에 따라 어떻게 나누어 가르칠지를 현장에서 결정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헤센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대조표”(Synopsen)라는 독특한 장을 가지고 있다. 각 음악과 교육과정의 말미에 위치한 이 장은 학교 급이 달라질 경우 어떤 내용이 연계되는지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그래서 전체의 학교 교육에서 음악 교과를 통해 성취해내려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숙지하게 한다.

2. 역량 중심의 구성

독일 음악과 교육과정은 그 현상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으로 오면서 하나의 기본적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즉, 역량 중심의 음악과 교육과정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음의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일에서 '역량'을 음악 교과수업에 소화하는 것은 거의 20년 전부터 이루어져왔고(So et al., 2014, p. 28), 오늘날에는 모든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이 이 추세를 따른다.

<Table 4> Composition of music curriculum

State		General issues (Status of Class/Structure)	Particular issues (Learning Area/Content)
Baden -Württem berg	EL	• Leading thinking about competency achievement • Course-related competency • Standard for content-related competency★	▷ Music organizing ▷ Music listening and understanding ▷ Music transition
	SE	★: A chapter in which areas and contents of learning are presented.	▷ Music organizing & Experience music ▷ Music understanding ▷ Music reflection
Bayern	EL	• The justification of music class and their contribution to education • Competency guide in music class	▷ Speeching – Singing – Musicing ▷ Music – Human - Time ▷ Movement – Dance - Stage ▷ Music and its foundation
	SE	• Structure of music class teaching plan★ • Collaboration with other class • Contribution of music class to macroscopic education and parenting goals	
Berlin & Branden burg	EL	• Competency development in the music class	▷ Music basics ▷ Form and formation ▷ Types and genres ▷ Action and function ▷ Music in a cultural context
	SE	• Competency and standards • Topics and content★	
Bremen	EL	• Challenges and goals in the art learning area • [Music] Deepen of class★ • Class through visible play • Promotion of special education	▷ Music making /discovering (voice, instrument, media) ▷ Music listening ▷ Music transition
	SE	• Task and goal	▷ Sing and dance

State		General issues (Status of Class/Structure)	Particular issues (Learning Area/Content)
		• Topics and content★ • Standards • Grading	▷ Instrument and sound ▷ History, picture, movement ▷ Composer(and their music⁹⁾) ▷ Basic of music theory ▷ Music as a historical phenomenon ▷ Cross-cultural music ▷ Music and media ▷ Music market [Addition to Gymnasium] ▷ Music as an aesthetic phenomenon ▷ Contemporary music ▷ Musical play
Hamburg	EL	• Education and care in school¹⁰⁾ • Competency and its achievements in the music class	▷ Production ▷ Reception ▷ Reflection
	SE	• Observation, requirements, content standards in music class★ • Grading review and evaluation	
Hessen	EL	• Competency guidance and class contribution to education • Competency of curriculum • Content concept of class • Educational standards and content areas★ • Checklist	▷ Music listening ▷ Music making ▷ Music transition [Elementary] /transformation [Secondary]
	SE	[Add to above structure] • Competency expectations and content areas related to the period of learning¹¹⁾[Gymnasium]	▷ Exploring music culture
Mecklenburg-Vorpommern	EL	• Education and care in elementary school • Contribution of class to education and care in elementary school • Standards • Class formation – Demand of class teaching method • Contents★ • Grade check, Grade evaluation, Record	▷ Music discovering, reproducing, organizing ▷ Music listening, understanding, categorizing ▷ Music transition

State		General issues (Status of Class/Structure)	Particular issues (Learning Area/Content)
	SE	[5th, 6th grade] • Guidance stage and grades 5th and 6th of a comprehensive school • Contribution of class to competency development • Recommended guidelines for music class • Use of normative plans [curriculum] • Class plan★ • Motivation for cross-disciplinary and interdisciplinary projects • Guidance and Evaluation [7th-10th grade] • Classes at secondary school level I at all kinds of secondary • Pedagogical principles for music classes • Normative plan[curriculum] [application]work • Grading in music class • Motivation for cross-disciplinary and interdisciplinary projects • Class plan★	▷ Music making ▷ Music listening ▷ Knowing music
Nieder-sachsen	EL	• Muse-Cultural-Aesthetic Education[Elementary only] • Educational contribution of music class	▷ Recognizing ▷ Organizing ▷ Cultur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SE	• Form classes into core curriculum • Competency areas of music class [Elementary only] • (In the music class) [Elementary only] Expected competency★ • Grade identification and Grade evaluation • Task of class council	[Secondary(general)] ▷ Music organizing ▷ Music researching [Gymnasium] ▷ Music organizing ▷ Music listening and describing, music studying, giving meaning in music
Nordrhein-Westfalen	EL	• Challenges and goals • Competency areas and focus	▷ Music making with voices and instruments

State		General issues (Status of Class/Structure)	Particular issues (Learning Area/Content)
		• Competency expectation★ • Grade motivation and evaluation	▷ Music listening ▷ Music transition ▷ Understanding of music
	SE	• Challenges and goals of class • Competency area, content field, competency expectation★ • Learning performance measurement and grade evaluation	▷ Meaning of music ▷ Development of music ▷ Use of music
Rheinland-Pfalz	EL	• Achievement profile of music class • Development of knowledge and competencies • Introduction to pedagogical and methodological guidance • Guiding norm★ • Inspection of learning outcomes • Qualitative scale • Term index	▷ Express musically ▷ Music recognizing ▷ Communicate music in the media ▷ Considering and speaking about music
	SE	• Characteristics of instruction [Outline] • Guide to using teaching plans • Functional form as a music learning model • Competency • Music theoretical basics and theme of music classes • Music class[Ensemble, Choir etc.] • Grade inspection and grade evaluation • Transfer to Gymnasium in 8th grade	▷ European traditional music ▷ Music in cross cultural diversity ▷ Music of daily life
Saarland	EL	• Contribution of music class to education and care tasks • Class union work • Competency area 1★ • Competency area 2★ • Competency area 3★ • About grade inspection	▷ Music listening ▷ Music making ▷ Music and movement
	SE	[Secondary(general)] • Contribution of music class to education • Competency areas and theme	[Secondary(general)] ▷ Music making ▷ Music listening and reflection ▷ Music understanding

State		General issues (Status of Class/Structure)	Particular issues (Learning Area/Content)
		fields★ [Gymnasium] • Contribution of music class to achieve goals • Distribution of materials for grades 5th-12th★	[Gymnasium] ▷ Music making ▷ Music listening and reflection ▷ Music understanding and judging
Sachsen	EL		▷ Music discovering, reproducing, organizing with voice and instruments ▷ Music transition, connecting, making relationship ▷ Music recognizing, understanding, giving meaning ▷ Selection area[4-6 topic examples]
	SE	• Goals and tasks of music class • View of learning area and period • [each grade(unit) indication]★	[Secondary(general)] ▷ Speaking musically ▷ Cultural life ▷ Complex formation task [10th grade only] ▷ Selection area [Gymnasium] ▷ Music practice ▷ Music listening and researching ▷ Selection area
Sachsen-Anhalt	EL	• Task and concept of class • Competence and basic knowledge • Contribution of class to selected basic competency ★	▷ Singing ▷ Playing instruments ▷ Music and movement ▷ Music listening and reflection ▷ Creative activity with music
	SE	• Education and parenting in the music class • Competency development concept in music class • Development of class- related competencies [Only at Gymnasium] • Competency development in grade course★	▷ Playing with voice and instruments ▷ Identify and apply musical processive structure and forms ▷ Understanding music in times of change ▷ Discover the world's music culture ▷ Music reflection and

State		General issues (Status of Class/Structure)	Particular issues (Learning Area/Content)
			organizing music in a media context [Gymnasium 10th] ▷ Origin of European music ▷ Exploring medieval German music culture ▷ Playing music in practice and performing ▷ Identify and understand European music history with a systematic view
Schleswig-Holstein	EL	• [Each school] Music class at school • Music class at the beginning level [Add to elementary]	▷ Music and its principles ▷ Music and its development ▷ Music and its meaning
	SE	• Competency area • Theme and content of music class★ • Class curriculum in school • Grade evaluation [Appendix]	
Thüringen	EL	• On the development of competency in Thüringen elementary music class • Competency goals★ • Main content[Basic theory] • Measurement of grade	▷ Music organizing and experience music ▷ Music listening and understanding ▷ Music visualizing
	SE	• On competency development in music classes for graduation from Hauptschule and Realschule [Secondary(general)]/ mature college studies[Gymnasium] • Competency goals and contents [Guide by grade group]★ • Measurement of grade	

Abbreviation: EL=Elementary, SE=Secondary

- 9) 김나지움에는 없고 중등 일반에서만 나타난다.
 10) 학교 급 및 종류에 따라 해당 학교를 Grundschule, Stadtteilschule, Sekundarstufe I des Gymnasiums 등으로 명시한다.
 11) 중등 공통으로 설정된 장이나, 하우프트슐레와 레알슐레에서는 내용 제시가 생략되어 있다.

15개의 음악과 교육과정 중, 그 구성 체계를 볼 때 장의 제목에 직접 역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는 3개이다. 상대적으로 이전 시기에 개정된 메클렌부르크-포퓰머른 주, 개정 연도가 학교 급에 따라 상당히 다른 브레멘 주, 그리고 최근 개정 하였음에도 역량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작센 주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주들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각자의 이유로 아직 역량 체계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지 않고 있지 않지만, 그 내부에는 역량 중심의 교육활동을 소화해 내려는 흔적이 존재한다.

메클렌부르크-포퓰머른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2002년 베를린 주 및 브란덴부르크 주와 공동으로 개정하여 사용하였고, 베를린 주와 브란덴부르크 주는 최근 (2017/2018)에 개정된 음악과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그런데 메클렌부르크-포퓰머른 주가 아직도 적용 중인 2002년 공포의 음악과 교육과정에 이미 역량 체계에 대한 안내가 있다. 이 교육과정의 서문을 보면 “학생의 역량 발달은 모든 교과계획을 위한 통일된 교육적 기초를 이룬다.”(MP, 2002, p. 1)고 명시되며, 그것이 2000년에 다양한 교육 구성체가 기본적으로 합의한 사항이라고 안내한다. 이 교육과정에 도입된 역량 영역은 “사물 역량”(Sachkompetenz), “방법 역량”(Methodenkompetenz), “자아 역량”(Selbstkompetenz), “사회 역량”(Sozialkompetenz)이다.

작센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최근에 개정되었는데, 역량을 중심으로 음악 교과 활동을 안내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음악 수업 주제에 부분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을 통해서 역량 제고를 장려한다. 이 교육과정이 내세우는 역량 영역은 “방법 역량”, “학습 역량”(Lernkompetenz), 그리고 “사회 역량”이다. 음악 교과 내용과 연계시키는 방식은 [Figure 3]과 같다.

Lernbereich 3: Musik umsetzen, verbinden und in Beziehung bringen		13 Ustd.
[Learning field 3: Music transition, connecting, making relationship]		[13 Hours]
Musizieren mit dem Körper [Performing with body]	[Translating musical progress, organizing means and principles into free movement for oneself]	
- Musik in körperlicher Bewegung umsetzen [Music transition to bodily movement]	musikalische Verläufe, Gestaltungsmittel und -prinzipien in freier Bewegung selbstständig umsetzen	
	Schattentänzen [Shadow dance]	
	⇒ Sozialkompetenz [Social competency]	

[Figure 3] Competency indication of Sachsen state curriculum

초등학교, 중등학교 일반, 김나지움의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시기가 각각 다른 브레멘 주는 역량이라는 키워드가 독일의 음악과 교육과정에 도입된 과정을 표본적으로 보여준다.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은 2001년, 중등학교 일반의 것은 2012년, 김나

지움의 것은 2007년 개정되었다. 2001년 개정된 음악과 교육과정에는 역량 중심의 설계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음악 교과의 목표를 설명하면서 일반적 사용의 방식(“문화역사적 역량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역량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타난다(BRE, 2001, p. 11). 이에 비하여 2007년 개정된 음악과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음악 교과 역량의 제시 방식이 전통적 학습 분야 제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역량 구분의 틀이 “음악 형성하기”, “음악 청취하기 및 이해하기”, “음악 반향하기”로 제시된다. 그리고 학습 분야를 열거하는 각론 부분에서 “표준”이라는 상위의 제목을 사용하며, 그 아래 “요구사항”을 두고 있다.

브레멘 주의 2012년 개정된 교육과정에는 2007년 개정의 것에 추가하여 “과정 관련 역량”(prozessbezogene Kompetenz)이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과정 관련 역량의 단계에서 좀 더 구체적인 활동 안내가 이루어진다. 예컨대 요구사항의 “노래들을 부를 수 있다”가 과정 관련 역량에서 “간단한 가락을 지속적으로 깔끔하게 소리 내며 발성 기술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로 구체화된다(BRE, 2012, p. 9). 하지만 브레멘 주의 “과정 관련 역량”의 제시 방식은 다른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이 보이는 경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과정 관련 역량과 내용 관련 역량을 구분하는 것은 최근 독일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경향이다. 근래에 개정된 것을 중심으로 보면, 과정 관련 역량은 교과 내용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언급되거나, 교과 역량의 범주에서 내용 관련 역량(날줄)과 씨줄처럼 교차한다. 이를테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중등학교에서 과정 역량은 “인격성과 정체성”, “공동체와 책무”, “방법과 기술”, “소통”, “사회와 문화”로서 모든 교과를 아우르는 포괄적 역량을 의미하고, 내용 관련 역량은 “음악 청취하기”, “음악 이해하기”, “음악 반향하기”로서 음악 교과의 역량을 지칭한다. 학습 영역 역시 내용 관련 역량을 이어받아 서술된다. 이러한 방식은 바이에른 주, 니더작센 주(초등)에서도 발견되며, 역량의 종류는 주에 따라 다소 다르게 설정된다.

이에 비하여 과정 역량 자체를 음악적인 것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중등학교에서는 과정 ‘관련’ 역량이 아닌 과정 역량(Prozesskompetenzen)으로 표기하면서, “수용”, “생산”, “반향”을 제시한다. 라인란트-팔츠 주에서는 과정 역량을 “음악적 표현과 활동”, “음악적 인지”, “음악적 경험”, “음악적 문화”로 설정한다. 자를란트 주의 초등학교에서는 “음악 청취하기”, “음악 만들기”, “음악과 움직임”을 과정 관련 역량으로 내세운다. 이러한 주들에서는 과정 관련 역량과 내용 관련 역량의 이원 체제를 쓰지 않고, 과정 관련 역량이 이미 음악적인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것에 기초하여, 즉 그것을 학습 영역으로 삼아 하위 내용을 열거한다.

반면, 작센-안할트 주와 튀링겐 주에서는 음악적인 사항들로 과정 관련 역량 및 내

용 관련 역량을 꾸민다. 두 계열의 역할 구분은 두 주가 각각 다르다. 작센-안할트 주의 초등학교에서는 과정 관련 역량을 “음악적 활동 역량” [중등 일반: “음악적 재생산 역량”, 김나지움: “음악적 형성 역량”, “음악적 수용 역량”, “음악적 창의 역량” [이상 두 가지: 초등 및 중등 공통]으로 설정하고,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등을 내용 관련 역량으로 제시한다. 이에 비하여 튜링겐 주에서는 “음악 형성하기 및 체험하기”, “음악 청취하기 및 이해하기”, “음악 시각화하기”를 과정 역량으로 놓고, “목소리와 노래”, “악기 연주하기” 등을 내용 역량으로 본다. 즉, 각 주가 ‘활동’ 과 ‘재료’를 나누려는 시도를 보이나, 그것의 분류 명칭이나 위계는 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물론 헤센 주처럼 범교과적 역량을 명시하고 그 아래에 교과 역량을 설정함으로써 과정 관련 역량이라는 용어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교과 역량 아래에 세부 학습 내용이 위치하는데, 하위의 단계에서는 표준(바덴-뷔르템베르크, 베를린 & 브란덴부르크)이나 역량 기대(헤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또는 기대(작센, 쉘레스비히-홀스타인) 등으로 그 내용이 구체화된다.

학교 교육의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교육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구현해 내려고 할 때 역량의 위계 또는 그 층위의 설정은 교육적 사고의 체계화에 필수적이다. 그런데 그러한 체계적 접근은 음악 교과의 학습 영역을 역량 중심으로 펼치려고 할 때 복잡함을 가중시킨다. 그 내막을 보면 역량으로 귀착되는 내용(재료)과 방법(활동)이 현대의 음악 교과에서 서로 잘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음악교육 현장에서는 음정과 그것의 활용이 묶여야 역량의 형태가 가시화된다.

나아가 교과 역량을 성취 수준으로 풀어내게 되면 그것들은 자주 범교과적 역량과의 관련성이 약해지거나 그 관련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범교과 역량 ⇨ 교과 역량 ⇨ 학습 영역 ⇨ 성취 수준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역량을 중심으로 논리성을 잃지 않으면서 가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사례가 최근 새로운 틀로 음악과 교육과정을 탈바꿈시킨 헤센 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베를린 & 브란덴부르크 주, 쉘레스비히-홀스타인 주 등의 교육과정에 나타난다. 독일의 음악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역량 설계는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세밀하게 진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심층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3. 학습 영역 구분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이라는 학습 영역의 구분이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거기에 음악의 기초이론 또는 기초요소/개념이 따라 붙는다. 이 전통은 여전히 살아있다. 한국의 역대 교육과정은 그 대분류를 ‘표현 + 감상

+ 생활화' 또는 '이해 + 활동' 등으로 하더라도 그 속에 위의 분류법이 겹쳐서 자리 잡고 있으며, 학교 현장 및 교사교육에서도 그러한 구분을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인다(Ju, 2017, pp. 183, 190). 학습 영역을 어떻게 나눠 제시하느냐는 음악 교과와 방향 설정과 교육과정의 활용 편리성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전반적으로 유럽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 활용 중심의 수업 주제를 학습 영역으로 사용해 왔다(Schlegel, 2004, pp. 39-40). 이러한 접근은 음악 교과에서 실용적 교육과정의 구안을 위한 명분을 제공해 준다(Ju, 2015, p. 235). 그런데 '역량 중심'이라는 트렌드가 일반화되면서 수업주제의 포괄성과 체계성, 그리고 그 적절성이 더욱 요청된다. <Table 4>에 나타난 학습 영역¹²⁾의 분류를 보면 그 현상을 단적으로 특징짓기가 어렵다. 15개의 스펙트럼으로 펼쳐진 독일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그 가능성의 폭을 넓게 잡게 한다.

수업 주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정도는 각 주의 교육과정에 따라 다소 다르다. 소위 교육과정 해설서 수준의 현장 지침(예: 헤센 주와 쉐레스비히-홀스타인 주의 '이끄는 실')을 제공하는 경우는 내용 영역의 분류 명칭이 상당히 포괄적이다. 이에 비하여 브레멘 주처럼 총론에서부터 교과 내용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다루게 되면 학습 영역이 세부 수업 주제의 모습에 가까워진다. 물론 교사교육 등의 변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어느 한 방식의 우위를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주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독일의 음악과 교육과정 또는 해설서에서 세부 주제들은 학습 영역 아래의 하위 주제로 또는 성취 수준으로 구체성을 띠도록 제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학습 영역의 수와 관련하여, 브레멘 주의 중등학교 일반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3~5개의 학습 영역이 설정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니더작센 주의 중등 일반이나 쉐레스비히-홀스타인 주에서는 2개의 대 영역(음악 형성하기, 음악 탐구하기)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음악 교과의 역량을 그렇게 대별한 것에 기인하며, 음악 활동 및 수업 주제 역시 그 범주에서 나타난다. 적용 대상의 학교 급 또는 종류와 관련하여,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또는 학교 급을 통틀어 같은 학습 영역을 사용하는 주가 대부분이다. 반면, 작센 주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다른 구분을 사용하고 있다(<Table 4> 참조). 브레멘과 니더작센도 그러한데, 그것은 학교 급에 따라 개정 시기가 다른 데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작센-안할트 주의 김나지움 10학년에 다른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학교 급이나 종류가 달라짐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관련 영역의 변화를 나타내고자 할 때 부분 첨가나 부분 심화의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그 현

12) 이 명칭은 독일어 'Lernbereiche'를 기준으로 하였다. 하지만 개별 교육과정에 따라 '내용 영역'(Inhaltsbereich), '내용 관련 역량'(inhaltsbezogene Kompetenzen), '주제 분야'(Themenfelder) 등으로 조금 다른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다.

황은 <Table 5>와 같다. 이 외에 작센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영역을 두고, 거기에 예시된 수업 주제 중에서 선정한 내용으로 2주 분량의 음악수업을 전개하도록 안내한다.

<Table 5> Partial change in learning area according to school level(type)

State	Change
Baden -Württemberg	• Elementary: Music organizing → • Secondary: Music organizing and experiencing music
	• Elementary: Music transition → •Secondary: Music reflection
Saarland	• Elementary: Music listening → • Secondary(general): Music listening and reflection
	• Secondary(general): Music understanding → • Gymnasium: Music understanding and judgement
Niedersachsen	• Secondary(general): Music researching → • Gymnasium: Music listening and describing, music studying, giving meaning in music

수많은 학습 내용을 병렬의 형태로 나열하지 않고 유목화 하여 일정 영역으로 나타내는 핵심적 이유는 전체 조망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 유목화 한 결과의 가짓수가 많을 수 없으므로 그것들을 표현하는 단어 또는 단어 조합은 언어적 함의가 포괄적이면서도 동시에 명쾌해야 한다. 후자의 측면은 분류 제목이 주는 창조적 작용과 직결된다. 이를테면 튜링겐 주의 영역 구분에서 “시각화하기”(sichtbar machen)는 그 자체가 매우 도전적이다. 포괄하는 내용을 보면 음악과 움직임, 음악과 표시, 음악극이 그 안에 놓인다. 이러한 내용은 다른 주의 교육과정에도 대부분 동일하게 나오지만, 다른 명칭의 분류 영역 안에 들어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 다시 말하면 그 제목의 포괄성에 대한 점검 및 새로운 시도는 계속 열려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음악교육적 사고를 자극하여 교과 활동의 합목적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위의 음악 시각화하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신체 움직임을 리듬 학습의 관점에서 수행한다면 그것은 유리드믹스(Eurhythmics) 계열의 활동이 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신체 움직임을 음악 시각화하기의 활동이라고 본다면 음악 전이하기 계열의 활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방식뿐만 아니라 그 표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악보를 기능의 측면(기보법 학습)에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기호 효율성의 측면(창의적 표현)에서 접근할 것인지도 각각 다른 형태의 학습 활동을 유도할 것이다. 음악극 역시 음악의 시각화 관점에서

다른다면 줄거리의 진행, 문학적 감정이나 그것의 긴장관계에 머물지 않고, 무대 위의 가시적 상황에 대한 관심까지 유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 영역 구분의 명칭 결정은 언어적 의미 규정과 더불어 어떤 방향의 음악교육적 사고를 유도할 것인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셈이다.

학습 영역을 세 가지로 압축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맥락의 단면을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어느 것을 사용하든 실제 활용하는 하위 지침은 활동 안내 방식의 성취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학습 영역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의 판단 기준은, 학생의 성취 결과가 교과 역량과 어떻게 정합성을 이루느냐에 모일 것이다. 독일의 여러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교과 역량의 도출 부분에서 그러한 고민의 자취들을 발견할 수 있다.

<Table 6> Diversity in how learning areas are presented

Activity standard 1 (Field term type)	Activity standard 2 (Academic term type)	Content guide 1 (Music research type)	Content guide 2 (Music category type)
Mecklenburg - Vorpommern [Secondary]	Hamburg [Common]	Nordrhein-Westfalen [Secondary]	Rheinland-Pfalz [Secondary]
▷ Music making ▷ Music listening ▷ Knowing music	▷ Production ▷ Reception ▷ Reflection	▷ Meaning of music ▷ Development of music ▷ Use of music	▷ European traditional music ▷ Music in cross cultural diversity ▷ Music of daily life
Saarland [Elementary]	Niedersachsen [Elementary]	Schleswig-Holstein [Common]	-
▷ Music listening ▷ Music making ▷ Music and movement	▷ Recognizing ▷ Organizing ▷ Cultur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 Music and its rules ▷ Music and its development ▷ Music and its meaning	-

하지만 음악 교과의 내용 영역을 구성하는 하나의 틀은 범교과 역량과 나뉘는 합리적 연계를 시도한 개별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모든 음악과 교육과정에 적용할 만큼 보편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장차 실행을 통하여 그 효율성을 점검하여야 하므로 문서적 논리성이 절대적 근거가 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분류 체계가 하위의 수업 주제 도출을 사실상 규정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그 합목적성에 대한 논의는 향후 음악과 교육과정의 연구 및 개발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여겨진다.

IV. 결론

음악과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의 음악교육을 이끄는 기본 지침으로서 음악 교과와 목표와 내용 및 방법을 포괄한다. 그런데 그 문서의 틀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교과와 지향점과 사용의 편리성 및 교육 현장에서의 효용성이 영향을 받는다. 한국과 유사한 음악 교과와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은 전체 16개 주에서 현재 15개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음악과 교육과정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 적합한 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독일의 현행 음악과 교육과정은 외형 제시의 면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의 명칭이 다양하며, 그것은 개정 시기에 따른 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지칭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개정 시기는 주에 따라 다르므로 적용 시기 역시 통일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세계적 추세로 역량 체제가 도입된 2000년 이후 대부분 개정을 완료했거나 지속적으로 이 방향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음악과 교육과정이 전반적으로 역량 중심의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역량의 구분과 그 종류는 주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대상 학년의 구분은 학년 군으로 묶어 제시하는 경우와 개별 학년 단위에 의한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학교 급 및 종류에 따라 과도기적 학년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일부 혼용하기도 한다.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제시 방식을 추적해 보면, 장 구별은 주에 따라 특색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대체적으로 하나의 체계가 전체 학교 급 및 종류를 아우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제 교육 내용의 제시를 위한 학습 영역의 구분 역시 주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음악 내적 사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음악 교과와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두고 학습 영역을 설정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음악수업의 설계와 수행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학습 내용은 수업 주제 및 성취 수준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그러한 내용을 매개로 하여 상호 연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음악과 교육과정의 현장 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엇보다 교과 역량과 범교과 역량의 유기적 연결이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그 취지를 이어받은 수업 주제들이 실제 수업의 목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들이 합리적 위계를 갖추어

야 한다. 음악과 교육과정 구성 체계의 다양성을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독일의 사례는 역량과 내용 간의 그러한 정합성을 추구하는 데 시사점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의 2015 음악과 교육과정의 경우, 상위의 핵심역량과 하위의 활동 안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주 제기된다. 이것은 범교과적 핵심역량의 취지를 살린 음악교과의 주요 역량을 실제 수업 주제와 적절히 조응시키지 못한 결과에 기인한다. 물론, 이것을 현장의 음악교사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으나, 개정된 교육과정의 효율적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전체 맥락이 쉽게 파악되도록 교육과정 문서가 보다 정교한 체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수업 주제 중심의 내용 제시와 그것을 유목화한 교과역량이 음악교과의 학습영역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Beschluß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13. 09. 1996.*
- BRE(Bremen) (2001). *Ästhetik. Rahmenplan für die Primarstufe.* Bremen: Beate Vogel.
- BRE(Bremen) (2012). *Musik. Bildungsplan für die Oberschule.* Bremen: Beate Vogel.
- Deutscher Bildungsserver. *Lehrpläne.*
<https://www.bildungsserver.de/Lehrplaene-400-de.html>
- Deutscher Bildungsserver. *Sekundarbereich II.*
<https://www.bildungsserver.de/Sekundarbereich-II-Aufbau-und-Struktur-687-de.html>
- HES(Hessen) (2012). *Bildungsstandards und Inhaltsfelder. Das neue Kerncurriculum für Hessen. Sekundarstufe I - Realschule.* Hessisches Kultusministerium, Wiesbaden.
- Ju, D. C. (2015). A Preliminary Study on Developing a Practical Curriculum for General Music Education in School.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4(1), 219-242.
- Ju, D. C. (2017). An Efficient Application of a Competence-based Music

- Curriculum to a Music Textbook: Focused on a German Elementary Music Textbook.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5(4), 171-191.
- Kim, W. M., Suh, I. J., Yang, J. M., Ju, D. C., Lee, N. S., Min, K. C., Jang, K. B., & Choi, E. S. (2002). Thesis : An Analysis of School Music Curriculum in Korea by way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Journal of Society for Music and Korea*, 24, 317-353.
- KMK(Kultusminister Konferenz). *Sekundarstufe I*.
<https://www.kmk.org/themen/allgemeinbildende-schulen/bildungswege-und-abschluesse/sekundarstufe-i.html>
- Lee, K. E. (2019). International Comparison on the Presentation Methods of Competences in the Music Curriculum : With a focus on South Korea, France, Finland, and Australi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2), 61-84.
- Min, K.H., Kim, S.Y., Kim, Y.H., Bang, K.J. Seung, Y.H. Yang, J.M., Lee, Y. K., Lim, M.K., Cho, S., Joo, D.C., Hyun, K.S. (2017). *Introduction to music education*(3rd ed.). Seoul: Hakjisa.
- MP(Mecklenburg-Vorpommern) (2002). *Rahmenplan. Regionale Schule. Verbundene Haupt- und Realschule. Hauptschule. Realschule. Gymnasium. Integrierte Gesamtschule. Jahrgangsstufen 7-10*. Ruggentin: Adiant.
- SAA(Sachsen-Anhalt) (2007). *Fachlehrplan. Grundschule. Musik*. Sachsen-Anhalt Kulturministerium, Magdeburg.
- SAA(Sachsen-Anhalt) (2012). *Fachlehrplan. Sekundarschule. Musik*. Sachsen-Anhalt Kulturministerium, Magdeburg.
- SAA(Sachsen-Anhalt) (2016). *Fachlehrplan. Gymnasium. Musik*. Sachsen-Anhalt Kulturministerium, Magdeburg.
- Schlegel, C. M. (2004). *Europäische Musiklehrpläne im Primarbereich*. Augsburg: Wißner.
- So, K. H., Song, J. H., Hong, W. P. & Kang, J. Y. (2014). An Investigation on the competency-based Music Curriculum Development of Hamburg

in German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3(2), 25-45.

SRL(Saarland) (2006). *Lehrplan Musik. Achtjähriges Gymnasium*. Ministerium für Bildung, Kultur und Wissenschaft.

Received: 31 August 2019, Reviewed(Revised): 2 October(8 October) 2019

Accepted: 24 October 2019, Published: 30 November 2019

Dae Chang Ju: E-mail: dcju@gnue.ac.kr

Professor,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55, Pilmundaero, Buk-Gu, Gwangju, Korea

